

순천시, 3대가 즐기는 관광도시 만든다

2023년 방문객 2,586만명...전년 대비 11%↑ 전남 최고

“더 많은 관광객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순천시를 다녀간 방문객이 2,586만6,958명으로 집계됐다.

순천시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11%로 전남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에서도 5위 수준의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효과 특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도심 속 저지대에 조성한 오천그린광장과 아스팔트 차도에 잔디를 덮어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는 박람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오천그린광장은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린아일랜드는 단절됐던 정

원과 도시를 하나로 잇는 연결축 역할이 됐다. 또한 도심에서 개최한 푸드엔아트페스티벌,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 문화재야행, 세계유산 축제 등 행사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박람회 이후, 순천시는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혀 더 큰 도약에 나선다. 국가정원과 도심, 순천만을 하나로 이은 정원 위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입힌, 차별화된 한국판 'K-디즈니 순천'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박람회로 시작된 순천 열풍에 맞춰 새로운 관광 전략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 생태자원을 통한 '치유관광', 정원에서는 일하며 쉬는 '워크케이션'

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320억 예산을 확보해 갯벌치유플랫폼을 2027년 준공할 예정으로, 최고급 생태관광을 체험하는 남부권 광역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정원 주변시설을 활용하여 정원예

시 일하면서 쉬는 순천형 워크케이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으로, 인구감소 시대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한 해 981만 방문객이 다녀갔던 정원박람회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순천에 남을 생활인구를 늘려갈 계획이다.

▶ 순천 축제 브랜드화, 지역 협력으로 로컬 살리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형성된 관광도시 이미지를 브랜드하여 행사·축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I와 애니메이션을 연계한 축제를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산재했던 축제를 시기별·장소별·테마별로 재배치한 복용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과 협력하여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네트워크 구축한다.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 관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민이 직접 기획하는 로컬 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한다.

▶ 3대가 즐기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관광객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야간 관광 활성화에도 힘쓴다. 국가정원-동천-원도심을 연결해 야간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오천그린광장, 동천 주변 빛 디자인체계를 구축하여 거점별 핵심 포토스팟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AI 활용 맞춤형 관광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론 라이트쇼를 유지하여 3대가 즐겁게 밤에도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시민의 특색이 담긴 관광 콘텐츠 발굴로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주소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대상 30만원 최대 3개월

광양시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액 시비(총 사업비 5천만원)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일수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

단위로 신청하길 권장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신분증, 장려금 지급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 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로 문의하면 된다.

최숙와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내달 29일까지 동계 전지훈련 유치 20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고흥군은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토브리그 및 전지훈련팀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팔영체육관 등 5개소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박지성 공설운동장, 김태영 축구장, 야구장 2개소(금산, 도화), 테니스장, 탁구장, 역도장 등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고흥군은 사계절 기후가 온화하고 청정지역의 먹거리 또한 풍부해 최근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고흥군체육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스토브리그(야구 11팀, 축구 9팀, 배구 12팀) 및 역도 등 40여 팀 유치를 확정했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지훈련팀 방문 시 제공하는 각종 인

센티브와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으로 선수단은 물론 지역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 3일부터 11일간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는 야구, 배구 스토브리그가 시작돼 배구는 5일간, 야구는 10일간 각각 진행되며, 2월 29일 야구 스토브리그 및 전지훈련 마지막 일정으로 올해 동계 전지훈련이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고흥만의 특화된 전지훈련 명소로 만들어, 내년에도 우리 고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위촉...물가관리 나서

여수시가 2024년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물가관리에 나섰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올해 1년간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음식점·숙박업·개인서비스업(680여 개소) △요금 △주요생활물가(10개소) △명절 성수품 물가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가격정보에 대해 인상업소 가격 상승요인을 파악하고

위생 점검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매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에서 여수시는 물가모니터요원 10명과 물가 조사 운영 방향,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 조사 현장 방문 시 예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물가관리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